

# Floating Cubes

물 위의 방

정영한 아키텍츠  
YounghanChung Architects



Master plan

건축가: 정영한 아키텍츠 / 사진: 윤준환 / 자료제공: 정영한 아키텍츠  
edited by Lee Jeyon / photographed by Yoon Joohwan / materials provided by YounghanChung Architects

설명: 정영한 아키텍츠(정영한) 설계팀이다. 이영봉, 정성민, 허준우, 그레고리안(정영한) 협력.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선안길 196-9. 용적: 단독주택 대지(면적: 402㎡) 건축면적: 80.26㎡ 연면적: 80.26㎡ 연면적: 80.26㎡ 높이: 4.1 ~ 4.6m 주차: 19대 건축률: 19.97% 용적률: 19.97% 구조: 경량철골구조 + 목구조 외벽재질: 알루미늄 패널 내부재질: 벽내재질, 자재질, 목재, 도색판, 벽내재질(벽내재질) 설계기간: 2016. 12. ~ 2017. 5. 시공기간: 2017. 6. ~ 2018. 2. 건축주: 영대

Architect: YounghanChung Architects (Chung Younghan) Design team: Lee Jeongyeon, Jeong Seongmin, Heo Younghan Graphic team: Heo Younghan Location: 196-9, Seongwan 2-gil, Ochang-eup, Cheongwon-gu, Chungang-do, Korea Programme: residence Site area: 402㎡ Building area: 80.26㎡ Gross floor area: 80.26㎡ Building scope: 1F Height: 4.1 ~ 4.6m Parking: 1 Building to land ratio: 19.97% Floor area ratio: 19.97% Structure: Light steel + wooden construction Exterior finishing: aluminum panel Interior finishing: vinyl paint, stone panel, beech wood Construction: Dwelling Partners (Lee Kyun) Design period: Dec. 2016 ~ May 2017 Construction period: June 2017 ~ Feb. 2018 Client: Yang Saeyoung

정영한은 한양대학교 대학원 건축과를 졸업하였다. 2002년부터 개소하여 현재까지 다양한 실험적인 건축 프로젝트를 모색하고 있다. 2013년부터 장기 기획전시인 《최소의 집》의 총괄 전시 기획을 맡고 진행 중에 있으며 2016년에는 문화부 주제의 《새로운 주거형식의 조각들》 한국현대미술의 도시주거전체의 초대작가로 선정되어 상경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전시를 하였다. 주요 작품으로 인사동의 제타의 풍경(2011)은 2013년 서울시 건축상을 수상하였고 2014년에는 6×6주택으로 김수근 프리하우스를 수상하였다. 최근에는 다싱그루 나무로 2015 한국건축가협회(KISA) 올해의 베스트7 건축상 및 2016 한국현대미술협회 건축과 경인고수로 출품하고 있다.

Chung Younghan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architecture at Hany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He has experimented with a diverse range of architectural projects since opening his architecture firm in 2002. From 2013 onwards, he has been in charge of the direction of the long term themed exhibition Minimal House, and in 2016 he was selected as an invited artist for the Korean modern architecture international exhibition, Fragments of New Housing Language, organis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Education and Sports and hosted at th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His representative project, PORSCAPE (2011) in Insa-dong was awarded the '2013 Seoul Architecture Work Award' and 6-6 House was awarded the Kim Swoojeun Preview Award in 2014. More recently, Five Trees was simultaneously awarded the KIA Award (The Best 7 Architecture of the Year Exhibition) in 2015 and the Busanand Architecture Awards, 2016. He is currently lecturing as an adjunct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architecture at Kwangwoon University.



건축가는 물과 건축의 관계를 다채롭게 설정하고 주변의 풍경과 담임으로써 잠시 머무르는 동안이라도 도심 속 일상물 벗어난 경험을 주고자 했다. The architect intended to assert an experience, in which one could escape from the everyday life of the city during a temporary stay, by using water to conceive diverse relationships with the project and embrace the surrounding scenery.

## 사이의 대화

이영조 (비이커(텍스트 대표))

### 형식의 부재

도시를 떠나 근교를 지나가다 보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풍경이 있다. 나무가 무성한 숲이나 산비탈을 상징하여 계단식 형태로 땅의 위계를 정의하고 어김없이 '전원주택 단지분양'이라는 현수막을 내건 폭력적인 개발의 민낯이다. 게다가 각 개발 필지 주변 정갈 다양한 형태와 재질로 이루어진 국적분양의 집들이 들어서 있다. 이학적 아름다움, 대지 및 주변과의 관계를 논하기가

민감할 정도로 조악하고 원형을 훼손한다. 최고의 생산성, 최대 이익을 가져다주는 경제 논리와 외연 확장의 가치를 찾을 수가 없고 도시의 수많은 단독주택들의 '나 잘난 아우성'과 닮았다. 정영한(정영한 아키텍츠 대표)이 건축가가 처음 대지를 접했을 때 어떻게 주변과 대지와의 관계를 풀어갈지, 주변과 단절된 대지에서의 건축은 어떻게 설정할지 충분히 난감했으리라 예상할 수 있었다. 건축가는 '건축가 3인에게 주어진 각 필지는 땅물려 있으나 서로 다른 위계로 인해 선명한 경계만 남았을 뿐 지형의 고유성은 이미 사라져버린 뒤였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그 경계에 건축을 대항하기 위한 배치는 무의미하며 이로써 새로운 배치로

필지를 만들고 그 경계를 지워내고자 했다'라고 말했다. 원형으로의 회귀를 위한 의도적 관계 설정이 아니라 기존 훼손을 인정하고 새로운 관계를 찾고자 했다는 건축가의 서론에서부터 물 위의 방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한다.

### 기하학에 의한 균형

평평한 대지에 3×3 크기의 큐브 빌딩 6개가 회전과 변형의 기하학적 변주로 자리 잡으면서 비정형의 조각으로 잘린 대지 위에 뿌려진다. 일곱 개의 방들은 절교한 기하학의 질서 위에서 구조적 연고력을 가지며 건축가에 의해 치밀하게 의도된 위계의 흐름에 이끌린다. 각 덩어리는 고유한 레벨을 가지는

동시에 수직적인 내적 균형을 이룬다. 루이스 칸의 피셔 하우스에서 나타나는 절제된 두 개의 큐브의 기하학에서 이어 유서한 패턴을 읽을 수가 있다. 그러나 물 위의 방은 보다 작고 절제된 덩어리의 기하학이면서 동시에 땅속에 박힌 육중한 큐브가 아닌, 물 위에 부유하는 덩어리의 균중이기에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공간감은 사뭇 다르다. 미묘한 변이와 비틀림이 가해진 평면과 단면을 오르내리다 보면, 사용자는 다리 근육의 이완과 시각의 변화를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 층간이 강요된 경험의 패턴이지만 억지스럽지 않고 다음으로 이어지는 시퀀스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을 호출한다. 정영한의 전적인 부산 초량동의 다섯 그루

나무에서 이미 검증한 작은 덩어리들의 기하학적 개별적인 다른 형태, 다른 재료로 이룬 메스의 변주였다. 오창에 위치한 물 위의 방에서는 엄격한 기하학의 질서로 똑같은 크기의 큐브의 외부 균형을 다루었다. 반면 나무는 기하학의 질서를 깨뜨리며 자연스럽게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내부 공간들 점유하는 행동들은 기하학과 무관하기에 엄격한 질서를 최대한 흐리게 했다. 각 방들은 개별적으로 분리되지 않으며 사용자들이 원하는 대로 방의 분도는 유연하게 변화한다. 잘게 나누어진 입방체 면들의 피편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방들은 일상에서의 도피를 은유한다. 한 개의 방을 점유하더라도 다른 방들과의 미묘한 긴장감을 유지한 채 시간적 연속성을 가지며 충분히 독립적이면서도 동시에 하나의 칸 통로이기도 하다. 비선형적인 통로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기 위한 문들은 밖으로 열린 다양한 크기와 높이를 가진 창문들이 유일하여 주변 경관과의 시각적 '들고 남'과 물과의 '들고 남'을 주선한다. 균질한 공간의 절대적 불리함을 물과 경관의 적극적 연결로 충분히 극복할 뿐만 아니라 인근 밖의 경계를 흐리게 하는 건축가 고유의 고집스런 건축 언어에 어느덧 공감하게 된다. 다양하게 열린 창을 통해 주변의 경관은 나무의 흐름을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이를 통해 고정된 공간으로 위치하지 않으며 창으로 주변과의 관계를 맺고자 한다.

**물**  
집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각각 지는 방, 먹는 방, 쉬는 방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았어

머리 맞고도 덥소도 나을 만한 변변한 거실이 없다. 이에 대한 건축가의 변은 물로 이루어진 마당이 곧 거실이며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지붕 없는 방인 격이다. 물의 방은 건축가가 정밀하게 회전과 반복의 기하학 논리로 다룬 큐브들을 오묘이 담고 있다. 그 방에서는 남북 면에 높은 소나무 숲 사이로 살랑이는 바람소리, 하늘 위로 흘러가는 구름 그림자의 느린 움직임, 그리고 일렁이는 물에 비치는 빛의 파편들을 느낄 수 있다. 물을 통해서 건물과의 관계를 다채롭게 설정하고 주변의 풍광을 담아냄으로써 잠시 머무르는 동안이라도 도심 속 일상을 벗어난 경계를 주고자 한 건축가의 의도를 떠올리게 된다. 분디 우리 선조들의 여름놀이는 구중 계곡 사이로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넓은 바위 위에 앉아 풍류를 즐기는 것이 아니었었는가? 자칫하게 부시지며 떨어지는 물소리의 부채가 아쉬우나, 설계 원안에서는 물 공간이 단계별로 형성되고 워터 아레아 흘러내리도록 계획되어 있었는데 현실화되지 못했다. 건축가의 고백을 듣고 나서야 아쉬움을 덜 수 있었다. 수영장이나 연못이나의 구분은 짓고자 하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으며 사용자에 따라 물 공간을 정의가 바뀔 수 있는 건축적 구조와 연결고리들이 흥미롭다. 집 안에서 경관 요소로 물을 끌고 들어오므로서 오창 자수저의 관물과의 연속성을 부여했다. 그러나 굳이 '인피니티풀'이라는 단편적인 단어로 규정짓고 싶지는 않다. 방에서 창을 열고 나가면 물로 연결되는 다이빙 데크가 마치 계곡물에 발을 담고 더위를 식히는 모습을 연상하기에 충분하다. 주변 자연경관을 담고 있는 물을 통해 과거

경관으로의 회귀와 원시성의 환상을 통해 나르키소스의 신화적 경험을 하게 될지 모른다는 건축가의 이야기를 듣고, 어느새 물을 내려 보고 있는 나를 바라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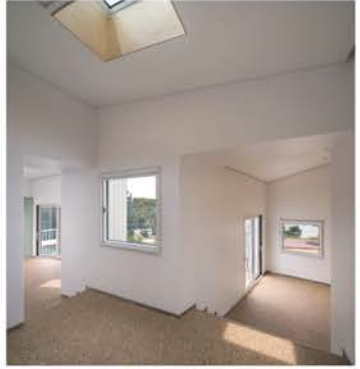
**건축가 세 명의 대화**  
건축가 세 명에게 주어진 개별 필지 중 하나로 출발했다는 태생적 관계의 관점에서 질문을 던져본다. 이미 인공적으로 만들어져 정형으로 인해 서로 다른 공간의 위계를 분리되어 있었고 그 불편한 관계에 주목하고 싶지 않았던 건축가들은 대화를 시작했다. 그러나 계획 초반에 흥미롭고 도전적인 과제들이 난관에 봉착한다. 각자의 해석과 어필 수 없는 개별 입장으로 인해 적당할 거리를 두게 되고 결국엔 남겨진 건축물이 많았어 대변하는 현상이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의 흐름을 매개로 하여 새로운 연결고리를 설정하고 세 개의 필지가 이루는 물의 질서가 기존 경계를 지우면서 각 개별적인 건축물을 하나의 그림으로 담아낼 수 있으리라는 건축가의 역설과 상상만이 계속 명멸고 있었다. 상상 속 물 위의 방은 점점 중시하여 세 필지 전체를 뒤엎고, 네 곳속엔 떨어지는 물소리의 환향들로 가득 차 있다. 세 필지의 건축가들 사이에 대화는 부재했고 정형한 건축가의 외로움 속에서 물 위의 방 사이의 대화만 조용히 들려왔다.

비선형적인 통로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기 위한 문들은 밖으로 열린 다양한 크기와 높이를 가진 창문들이 유일하여 주변 경관과의 시각적 '들고 남'과 물과의 '들고 남'을 주선한다. The doors on this long corridor, through which one could move to another space, are french-windows of diverse sizes and heights that open up to the outside, straining a visual 'in and out' with one's surroundings, as well as an 'in and out' to the water.



- 1. bedroom
- 2. toilet
- 3. dining kitchen
- 4. living room
- 5. bathroom
- 6. reflective courtyard
- 7. reflective pool
- 8. reflective point

1F plan



**Dialogues Between**

**Lee Youngjo**  
(principal, bp architects)

**The Absence of Original Form**

Upon leaving the city centre and passing through the suburbs, one often encounters a characteristic scene. This is the naked face of spacious development, in which a verdant forest or a mountain slope has been razed, forming a stair-like hierarchy across the land, accompanied, without fail, by a banner reading 'countryside housing lots for sale'. Furthermore, these individual

lots accommodate a myriad of stylistically unidentifiable houses, with a veritable array of forms and materials, damaging the original form of the land and rendering the environment so crude that it would be disconcerting to discuss aesthetic beauty 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and and its wider context. Ruled by the absence of any values inferior to the economic logic of importing the best levels of productivity and the best profit margins, these houses are no different to any other residential project in the city, which each seem to cry out their own self-importance. One can imagine that when the architect Chung Younghan first came across the site, he

would have been sufficiently at a loss as to how he could resolv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rrounding area and the site, and as to how he could conceive a project situated on a site cut off from its surroundings. The architect said that 'while the site was composed of three interlocking sites, each designated to one of three architects, the demarcation of the land had produced clearcut borders, rendering the original features of the terrain obsolete. It seemed futile for architecture to be conceived in accordance to these artificial boundaries, and hence I rather proposed a new arrangement that would have erased these borders'. Our discussion of the

project Floating Cubes can depart from this prologue by the architect, who talks of how his objective was to accept the existing damage, then seek out ways to connect these three projects, rather than setting to resurrect the site's original form by attempting up some sort of contrived relationship.

**Balance Through Geometry**

Seven 3x3m cubes have been arranged on a flat terrain, rotated and modified into a geometrical variation, then sprinkled over this dissected, irregular site. The seven rooms have been structurally conjoined based on an intricate geometrical order, leading on to each other with a



- 1. toilet
- 2. bedroom
- 3. bathroom
- 4. living room
- 5. dining kitchen

다양하게 물린 창을 통해 주변의 경관은 내부의 흐름을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The views from the windows, inserted in various places, naturally follow this internal path.

carefully construed continuation of order. Each parcel, distinguished by vertical compositions on the inside, also possesses its own unique level. A similar pattern can be found in the geometry of the two restricted cubes of Louis Kahn's Fisher House. However, in contrast to these weightier masses, that have been inserted into the land, the geometry of the Floating Cubes results in smaller and more buoyant masses, which the architect has composed a group of masses that float over the water, resulting in a subtly different sense of space felt by the user. As one mounts and descends the spaces derived from the intricately modified and distorted plan and section, the user experiences a rhythmical tension

and release in one's legs and variations in one's line of sight. While this is an arguably enforced pattern of experience, it does not seem contrived, rather alerting one's curiosity and inquisitive nature towards the sequence to follow. Five Trees, Chung Younghan's previous work in Choryang-dong, Busan, is a widely commended project based on a geometric formation of small masses, which were diversified with uniquely different forms and materials. Floating Cubes, which is located in Ohchang, has, externally, established a sense of balance by dealing a strict geometrical order to cubes of the same size. On the other hand, on the inside, the geometrical order has been disrupted, forming a single and natural continuation.

The behavioral patterns intended for the internal spaces have been spared from such strict order as much as possible, as they remain untouched by this geometry. Each room has not been reduced to its own confines and therefore embraces a number of programmes. The run of rooms that relentlessly continues along finely divided surfaces of these cubes serve as a metaphor for an escape form the every day. Even if one were to occupy a single room, the subtle tension maintained with the other rooms provokes a visual continuity, and these rooms are both independent, yet, arranged to form a single long corridor. The doors on this long corridor, through which one could move to another space, are french-windows of diverse sizes and heights that open up to the outside, arranging a visual 'in and out' with one's surroundings, as well as an 'in and out' to the water. This means that one cannot help but empathise with the obstinate architectural language unique to the architect, in which the disadvantage to limited space is effectively overcome by actively connecting the water to the scenery, thereby blurring the distinction between the inside and the outside. The views from the windows, inserted in various places, naturally follow this internal path. As such, the view of the outside is not read as a fixed scene, but rather as a contributing factor to continuation, in which the windows have been used to establish a relationship with the surrounding context.

in which the occupants could gather to converse. In defense of this choice, the architect suggested that the madang, a body of water, serves as the living room, as the project's most spacious, albeit roofless, room. This Floating Cubes fully embraces these cubes, which have been refined in the architect's detailed geometrical logic of rotation and repetition. From this room, one can hear the wind gently whispering through the pine forest to the south, slow movements of the shadows of clouds floating over the sky, and shards of light reflected on the rippling water. This is suggestive of how the architect intended to assert an experience, in which one could escape from the everyday life of the city during a temporary stay, by using water to conceive diverse relationships with the project and embrace the surrounding scenery. Wasn't the original summer past time of our ancestors to sit on wide rocks, appreciating the arts, while listening to the sound of water trickling through the valley? The absence of the sound of water, tumbling downwards as it shatters into droplets, is regrettable, but the initial plan had called for bodies of water to be inserted at each level of the neighboring site, whereby water would have trickled downwards from higher levels to lower levels. It was only after hearing the confession of the architect of its failure to materialise that I could reckon with this regret.

It is in fact, not of great importance whether one defines this body of water as a pool or a pond. What is more interesting is whether the architectural structure and connections newly define this space composed of water according to the user. A sense of continuity has been attributed to the greater waters



물 위의 방에서는 일정한 기하학의 질서로 짜집은 크기(의) 큐브의 외부 균형을 이루었다.  
Floating Cubes has, externally, established a sense of balance by dealing a strict geometrical order to cubes of the same size.

**Water: Pool vs Pond**  
As a residential project, the space is composed of rooms in which to sleep, eat and rest, without an adequate living room

of the Ohchang reservoir by drawing in the water as an element of the external scenery within the house. However, it is preferable that this body of water remains free from a partial definition as an 'infinity pool'. The diving deck that connects to the pool upon opening a window and exiting from a room is enough to offer relief from the heat by placing one's feet inside cool valley streams. I ended up finding myself staring down into the water after hearing the architect's words, that the reflective courtyard, evoking a return to its past landscape, and as an illusion of primitiveness, might invite the mythical experience of Narcissus.

**A Dialogue Between Three Architects**

One could inquire after the project's point of departure, by which the architect was given a single site and planned his approach from the viewpoint of forming an coherent relationship between a group of sites assigned to three architects. The artificially established terrain had already been demarcated with an order of its own, and the architects, who did not wish to be fixated on these inconvenient boundaries, began a dialogue, but soon found themselves facing difficulties due to the exciting and ambitious challenges posed by the early stages of a project. Due to their individual interpretations and inevitably individual stances, each started to restrict themselves to a certain extent, leaving behind a scene in which only the remaining architectural works have been left in silent defense.

The scene now possesses only the spectre of the architect's approach, and his vision that flowing water, falling progressively downwards, could be utilized as a medium to conceive new relationships between the three sites, whereby the order of the water, as it encompasses all three sites, would erase the existing boundaries and capture these individual projects into a single frame. In my mind, this 'room on the water' progressively unravels before my eyes, enveloping all three sites, as my ears grow attuned to the hallucinatory sound of tumbling water.

The dialogue between the three architects remains absent, leaving only the soft sounds of the architect Chung Younghan's solitary monologue and dialogues between the Floating Cubes.



물 위의 방은 보다 작고 강렬한 덩어리의 기하학이면서 동시에 명숙에 박힌 육중한 큐브가 아닌, 물 위에 부유하는 덩어리의 군집이다.  
The Floating Cubes, a group of masses floating over the water, has the geometric organisation of small and buoyant masses.

이영호는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했으며 이산(간)대학교 건축도시계획 대학에서 건축 석사 학위를 받았다. 미노루 야마사키(미노루)에이치츠 본사와 한국지사에서 건축 실무를 익히고 2004년부터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주)전아건축도시종합건축사사무소 디자인 파트너를 거쳐 2007년부터 (주)건축사사무소아이비에이치에이치 대표 건축가로 있다. 다양한 삶의 방식과 라이프 스타일의 관점으로 주거시설의 새로운 관계와 접점을 찾고 있다. 최근 제주도와 서울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스케일과 환경에 따라 변하는 주거 프로그램의 유연성에 집중하고 있다.

Lee Youngho graduated from Yonsei University, majoring in architectural engineering and received a masters degree in architecture from Taubman College of Architecture and Urban Planning, the University of Michigan. He practiced at Minoru Yamasaki Associates, Ltd and Yamasaki Korea. He was a design partner at JINA Architects, Ltd and is currently the design principal of Ip architects. He has been exploring new possible boundaries and interfaces between houses, from the perspective of different lifestyles and living conditions. More recently he has been concentrating on the flexibility of housing programmes within environments of varying scales in both Seoul and Jeju.